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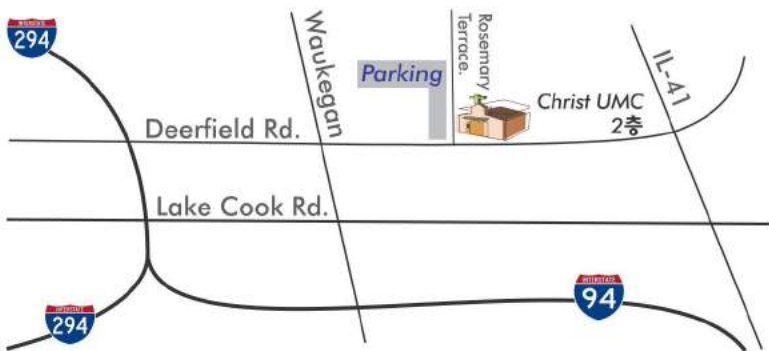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기쁨, 회복, 나눔

November 11, 2018

2018년 11월 11일

4-45 호

감사의 달

믿음 성장 / 신앙성숙 추구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태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복음 14:1-6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며, 그 곳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384장 / 나의 갈길 다가도록 (통일찬송가 434장)
	현신과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읽어 씁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서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정줄리 권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20:1-21
구원자와 보호자는 누구인가?

묵상에세이

“의도적인 감사”

감사는 배워야 할 특성이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습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감사는 내가 성장시키고자 노력한 분야이다. 당신이 작은 일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이 가진 전체적인 조망은 완전히 바뀐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나 세상이 당신에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조차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살펴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 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한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할 것을 우리에게 명한다. 최악의 시기에도 우리 주변의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황에서 선을 찾는 데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성서는 관용에 대해서도 말하며 그것이 감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고후 9장 11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된다. 음식, 선물 등의 물질적인 것이나 자원 봉사 또는 단순히 친구를 도우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든 우리의 하루 하루의 태도가 바뀐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무언가를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분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기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작은 축복조차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 장 4-5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제시한다. 모든 것이 좋으며 거부 할 것이 없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장한 채로 축복을 전한다. 이성친구와 헤어졌거나 시험에 실패했을 때에도 당신이 감사 할 수 있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성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진정한 삶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고, 시험에 실패했다 해도 더 열정을 가질 만한 전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좌절감, 실망감, 예상치 못했던 뒤틀림에 감사하라. 그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 크리스찬 투데이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관여하시옵니 후에 내가 육은 그가 되어 나으리라.” (욥기 23:10)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두달 뒤면 2019 년이다. 내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연말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

1.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하고 키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특권을 받게 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일 년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자랐습니까? 죄와 자아가 더 많이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더 많이 살아났습니까?

2. 고백되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고백하지 않은 죄를 다음 해로 옮기지 말라. 지난 1 년을 돌아보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라. (정말로) 죄가 없다면, 죄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를 회개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3. 기도 응답을 체크하라.

2018 년에 주님께 기도한 것들에 대한 신앙 목록을 만들어 보자 당신의 명단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 보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하라.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라.

4. 모든 범죄를 용서하라.

내년에 용서하지 말라. 2018 년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되돌아 보고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혔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인정하고, 그를 용서하라. 가해자의 사과 또는 미안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용서할 수 있다.

5. 과거를 버려라.

내년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들어가기에 원한다면, 과거를 놓아줘야 한다. 금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선과 악을 포함하여 버려라.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라. 당신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

한 주간의 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감사가 찬양으로 끊이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자겨 없는 주의 일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의 남은 기간에도 최선은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 월은 감사의 달 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2. Oikos 사역: 친교와 영적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ell 모임을 오늘 저녁에 가집니다.
- 3. 다음 주일(18 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 4. 각 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 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합니다.
- 5. 선교찬양집회를 11 월 30 일(금)부터 12 월 2 일(주)까지 가집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합시다
▶금요선교집회 8pm / 토요 새벽기도 / 토요 찬양집회 6pm / 주일 선교집회 11:30am / 주일 찬양집회 5pm
- 6. 17 주간 성경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줍니다.
- 7.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 8. 박윤숙 선교사의 코스타 리카와 중남미의 2 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9. 토요 새벽기도회 시간이 아침 7 시로 조정됐습니다.

기도제목

-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주일에배기도	11/11	11/18	11/25	12/2
		김태성집사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예배	금요일배기도	11/16	11/23	11/30	12/7
		정줄리권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오정은집사
예배	주일헌금위원	11/11	11/18	11/25	12/2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예배	주일안내위원	11월			12월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의 본을 따라** ... / 요한복음 13:1-15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겔옷을 벗으셨다. 선생님과 주님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체면과 위신 모든 것을 겔옷과 함께 다 벗어 놓으신 것이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경쟁하는 제자,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섬김의 정수를 보여주시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자기를 과시하며 나타내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섬기기 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도록 다짐해야 한다.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며, 그 곳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 요한복음 14:1-6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며, 그 곳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 요한복음 14:1-6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방향을 잃고 헤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류는 목적지를 모른 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적지도 없이 사막 한 가운데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친교를 통해 형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평안이나 형제 사랑은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목적지로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두 번째 이유이자,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깨달았다면, 이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곧 길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완벽한 다리가 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방향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잘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 어떤 길로 왔습니까? 세상 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까?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